

# 최현 교수님이 알려주는 재학생/재수생 공부전략!

임용화학은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먼저 21년간의 기출문제를 꼼꼼히 훑어보고 그 유형을 숙지한 다음 수험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## [교과영역별 공부방법]

임용화학 내용학의 경우 ① 물리화학, ② 유기화학, ③ 분석화학, 그리고 ④ 무기화학의 4개 교과영역에서 출제되는 패턴을 분석하고 다 빈도로 출제되는 특정영역이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.

### ① 물리화학

열역학부분에서 제1법칙, 제2법칙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부분과 양자부분에서 병진, 회전, 진동 운동을 기술하는 부분 그리고 반응속도에서 정류상태근사를 활용하여 속도식을 푸는 것은 거의 매년 출제되거나 격년으로 출제되지요.

### ② 유기화학

유기화학에서는 크게 물리유기적인 계산과 혼성결합이론을 파악하는 부분과 화합물을 합성하는 부분 그리고 구조를 분광학을 통해 구조를 정성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즉, 출제는 3파트로 나누어 출제되니 이에 대비하여 각 functional group별 반응정리 및 메커니즘 파악은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적외선분광학, 핵자기공명분광학, 질량분석법을 통한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는 방법을 교과서의 예제나 연습문제를 통해 충분히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.

### ③ 무기화학

무기화학영역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물리화학과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. 특히 군론 및 혼성이론을 통한 화학결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렇지요.

학습 시 물리화학 교과서와 병행하여 정리해 두어야 효과적입니다. 무기화학은 특히나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란단계나 악티늄계열의 화학은 출제가 안되며 뭉치화합물 단원 역시 출제빈도가 극히 낮으므로 학습 시 참고해야 합니다.

### ④ 분석화학

마지막으로 분석화학 영역의 경우는 정량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. 적정을 통해 정량하거나 기기를 통한 정량하는 방법이 출제되는 것이죠.

따라서 이런 정량 기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.

## [임용화학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]

1. 4과목을 효과적이며 자유자재로 강의하는 강의교수 선택을 잘하는 것
2. 학부 때 학습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공지식을 잘 정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  
→ 방대한 4개 교과서 내용을 출제패턴에 맞게 잘 이해하며 전달해주는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빨리 수험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겠지요.

### 최현 교수님

“티치스파의 제 강의를 통해 지난 20여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. 4개 내용을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. 임용강의에 뛰어든 대부분 노량진 강의그룹들이 100% 팀을 이뤄 강의를 하는 것은 그 만큼 임용화학 강의를 혼자서 하기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버겁거나 어려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면 됩니다. 이리저리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갖추어 제대로 강의하는 저의 강의를 듣고 원하는 **합격의 기쁨**을 누리길 바랍니다!”